



유지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  
서울중앙병원 내과 과장

## 에이즈 감염자 현황과 경향분석 (8월 말 기준)

**에이즈의 예방방법으로서  
건전한 성관계,  
콘돔 사용 등을 홍보하고 있으나  
개개인의  
습관과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1981년 7월 3일자로 미국질병관리소 (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 발간된 주간 질병 및 사망보고서 (MMWR)에 이제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질병으로 19명의 에이즈 환자가 보고되었다. 그 후 유사한 환자들이 미국 각 지역과 구미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보통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될 질환으로 직감한 질병관리소에서는 에이즈 (AIDS)로 명명하고 미국 전역의 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환자가 여러 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에이즈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파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983년에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곧 이어서 1984년에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혈청학적 검사가 개

발됨으로써 감염자의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5년부터 미국에서는 수혈되는 혈액의 감염여부를 혈청검사를 통하여 식별하여, 수혈로써 전파되는 에이즈를 예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5년 하반기부터 특수접대부와 수입 혈액체제에 대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여부 검사를 시작하여 수혈로써 전파되는 에이즈를 예방하게 되었다. 1987년 7월부터는 모든 헌혈액에 대하여 에이즈 검사를 함으로써 수혈로 인한 에이즈의 전파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 에이즈의 발생을 규칙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전세계의 각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에이즈환자의 통계를 매달 발표하고 있어서 전 세계의 추세를 알아 볼 수 있다. 에이즈는 아직도 계속해서 퍼지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에

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인력의 부족 현상이 초래되어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들도 있다고 한다.

예방방법으로서 건전한 성관계, 콘돔사용 등을 홍보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습관과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의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도 요원한 단계에 있으며 예방주사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홍보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현황을 보건사회부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겠다.

### 1. 세계의 감염자현황

WHO의 추정으로는 현재 전세계에 약 1700만 명의 감염자가 있으며 200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하바드대학교의 헤젤다인 피트 박사의 추정에 의하면 2010년도까지 10억의 감

염자가 발생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1993년 12월말에 전세계에 852,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이 가장 많아 436,000명이고 다음이 아프리카로서 302,000명이고, 유럽은 103,000명, 아시아는 6,000명이었다.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태국이 가장 많아서 3,000명이고 일본은 621명이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환자의 성비율이 1:1에 다다르고 있어 이성간의 성접촉은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환자수는 보고되고 있는 수보다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한국의 감염자 현황

한국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는 1985년 12월 해외취업근로자 중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래 1994년 8월말 현재까지 모두 378명으로, 그 중 49명이 사망하였고 22명의 환자가 있다.

(표1)

(표 1.) 연도별 발생현황

										(1994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85~'87	'88	'89	'90	'91	'92	'93	'94	비 고	
총감염자	378	14*	22	37	54	42	76	78	55	남 336	
(여자)	(42)	(8)	(5)	(2)	(4)	(4)	(4)	(7)	(8)	여 42	
감염자중 환 자	22	1	3	1	2	1	2	6	6	사망 20 생존 2	
사망자	49	5	9	5	6	6	10	5	3		
관리인원	328	8☆	13	32	48	36	66	73	52	이민 1	

\* 표 : \* 85 : 1명, 86 : 4명, 87 : 9명 ☆ 85 : 1명, 86 : 1명, 87 : 6명 ※ 이민 : '87 여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성활동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생산연령층인 20대에서 40대까지가 339명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이즈환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여성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이 대부분(89%)인 양상이다. (표2)

(표 2)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발견 당시 연령임)

연령별	계	남	여
계	378(50)	336(40)	42(10)
0-9	3	3(1)	-
10-19	16	15	1
20-29	149(10)	132(9)	17(2)
30-39	140(24)	123(19)	17(6)
40-49	50(7)	45(6)	5(1)
50-59	16(4)	14(3)	2(1)
60이상	4(2)	4(2)	-

\* ( ) 사망 및 이민자임.

감염요인별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국외성접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내국인끼리의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성간의 성접촉을 통한

전과가 257명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성연애로 인한 감염자는 76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제조한 항출혈인자 제제를 수입하지도 않았고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일본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것은 아직까지 정맥주사 마약중독자들에게서는 에이즈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마약중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에 기인하거나, 또는 아직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표3)

### 3. 경향분석

우리나라의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의 발생은 1990년에 54명 그리고 1991년에는 42명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1992년에는 76명으로, 증가하였고 1993년에는 78명 그리고 1994년 8월까지 55명으로 1994년에는 총 74~7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2년에서 1994년까지의 감염자의 수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불행중 다행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의 계몽과 예방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1987년 이후에 발생한 감염자 중 위험인자에 노출된 감염자

(표 3.) 감염요인별 현황

계	소계	성 접 촉			수 혈		혈액	수직	약물	불명	기타
		국외 이성	국내 이성	동성 연애	국내	국외	제제	감염 주사			
378	333	156	101	76	9	9	16	0	0	3	8

\* 성접촉 : 국외접촉 : 141(1), 국내외국인19(3), 국내접촉 : 173(72) ( )는 동성

가 얼마나 되는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된 것이 언제 인가를 가능한 한 빨리 알아 내어서 감염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앞으로의 예방에 중점을 둘 집단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에이즈로 진단하는데 7~10년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감염자중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근래에 발견되고 있는 감염자들이 지난 1~2년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그들은 에이즈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의 발생빈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마약중독자에서의 발생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 마약중독자들은 하루 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예방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아주 빈곤한 층에서의 에이즈의 예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집단이 존재하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자의 대부분이 남성인데 이성간의 전파가 증가할 경우 여성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래의 에이즈 예방에 위험이 있는 집단을 파악해서 집중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겠고 남성들의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외국여행 중이나 국내에서도 에이즈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노출되는 것을 각 개인이 알아서 피해야 할 것이다.



## 열린 숲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외쳤던 왕관을 만드는 장인울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말없이 그 소리를 간직해 주던  
숲을 기억하시겠군요.

격월간 "에이즈"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위해 그 숲을 영구임대 하여  
활짝 열어 두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정감어린  
사연들.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이야기.

에이즈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격월간 "에이즈"를 보시고 느끼신 점 등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실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8-10  
올림피아 센타 911호